

무더위 날리는 ‘풍류의 시간’

‘2025 전국풍류자랑’ 11월까지 전국 곳곳 순회 공연

지역 전통예술 단체 5곳 대표작 무대... 전통예술, 현대적 재해석
광주·전남, 12일 광산문화예술회관·남도소리울림터 공연 등 4회

무대에 올라 퍼지는 땀과리 소리가 경쾌하다. 마당에선 풍물패의 장단이 흐르고, 연희의 몸짓은 유연하다. 이국고 옛이야기와 현대 감각이 맞물리며 ‘풍류의 시간’이 시작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25 전국 풍류자랑’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곳곳에서 순회공연으로 이어진다. 2023년부터 시작된 ‘지역 전통 공연예술 지원’ 사업의 일환인 이번 공연은 지난해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지역 전통예술 단체 다섯 곳의 대표작을 전국 무대에 올리는 자리다.

전통예술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매개로 관객은 작품을 즐기고, 예술인은 보다 넓은 무대와 새로운 관객을 만난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네 차례 공연이 예정돼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을 끈다. 이번 주말, 무더위를 저만치 밀어낼 두 편의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12일 오후 3시 풍물패정음의 ‘SHOW ME THE 장구 프로젝트’가 광산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른다. 리드미컬한 장구 소리는 지진 일상에 흥겨움을 더하고 화려한 LED 퍼포먼스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전통 풍물연희와 현대 미디어아트를 융합, 관객의 오감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에서 활동하는 전통예술단체 풍물패정음은 이번 작품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가능성을 무대 위에서 펼친다. (전좌석 1000원, 티켓링크 예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남도소리울림터에서는 광개토제주예술단의 ‘제주 옹고집전’이 예정돼 있다. 고전소설 옹고집전의 교훈적 서사를 바탕으로 연극적 요소와 연희의 몸짓, 전통 음악을 결합한 창작 연희마당극이다.

광개토제주예술단은 전북무형문화재 김제농악의 전수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제주 기반 전문 예술단체로 익살과 풍자의 정수를 선보인다. 가짜 옹고집과 진짜 옹고집이 맞닥뜨리는 장면은 유쾌하면서도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전통극의 묘미를 전한다. (전좌석 무료, 티켓링크 예매)

이밖에 오는 27일에는 장흥 정남진 불축제 무대에서 풍악광대놀이예술단의 ‘토리를 찾아서, 열

가 관객을 만난다. 지역별 민요의 토리(음계)와 민속 이야기를 따라가는 여정을 풍물과 연희로 엮어낸 작품이다. 각기 다른 지역의 소리와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녹여내며, 전통의 다양성과 흥겨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9월 6일에는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목포 교방의 ‘목포 예기권번 나들이’가 무대에 오른다. 일제강점기 목포 지역에서 활동했던 예인들의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우봉 이매방류 춤, 김수와 명인의 예술세계를 비롯해 한영숙류 태평무, 진유림류 대신무 등 시대를 대표하는 춤사위들이 예기(藝妓)의 품격과 미학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용과 전통 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는 목포권번의 예술성과 여성 예술인의 자긍심을 조명한다.

남도소리울림터에 우수작을 초청한 전남문화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이번 공연들을 통해 전통예술의 고유한 가치와 매력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지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통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연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겠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SHOW ME THE 장구프로젝트’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성교육

광주여성가족재단, 11월까지 영·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아이의 첫 번째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자녀와의 건강한 소통, 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11월까지 영·유아기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양육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성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자녀의 생애 주기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성교육 방법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다.

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연계해 33회에 걸쳐 진행되며, 재단 성평등 전문강들이 강의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를 기반으로 ‘성교육의 중요성’, ‘가정 내 실천 사례’, ‘성 행동 이해와 대처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9~10월에는 예비아빠와 남성 양육자를 위한 특강도 신설된다.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을 대상으로, 감정 표현과 자녀 성교육을 주제로 한 토크형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교육은 무료이며, 7월부터 10월 말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내 네이버폼을 통해 선착순 신청 가능하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이번 특강을 통해 더 많은 양육자와 아버지들이 성평등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광주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하서 김인후의 학문과 사상 조명

한국학호남진흥원 오늘 학술대회

‘문불여장성’(文不女長城)을 대표하는 인물은 하서(河西) 김인후다. 공자를 모신 사당인 문묘에 종사된 해동 18현 가운데 한 명으로 조선시대 학문과 절의, 문장을 갖춘 대학자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은 최근 호남을 대표하는 조선시대의 대학자이자 문인인 하서, 놀재, 석천의 주요 저작을 집대성한 서적 ‘하서전집’, ‘놀재집’, ‘석천시집’을 완역 출간한 바 있다.

이와 맞물려 한국학호남진흥원과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의 학문과 사상을 깊이있게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연다.

10일(오후 1시30분) 장흥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필암서원과 함께 하서의 학문과 사상을 조명하고 그 가치를 오늘의 관점에서 새롭게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제9회 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 일환으로 펼쳐지는 이번 주제는 ‘하서 김인후, 지성과 실천-‘하서전집’ 국역을 통해 본 학문과 사상의 현대적 가치’.

주제발표는 모두 다섯 명의 전문가가 맡았다. 원광대 김창호 교수는 ‘하서 김인후의 시세계’를 매개로 문학적 성과를, 성신여대 김용재 교수는 ‘호남의 사자, 하서 김인후의 의리와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하서가 추구했던 정신과 가치 등을 살펴본다.

하서의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조명하는 시간도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안동교 자료교육부장은 ‘하서 김인후의 교육활동과 문인들’을 주제로 교육자로서의 하서의 면모와 그가 길러냈던 제자들, 이들의 관계를 학문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조미은 기획연구부장은 ‘조선 후기 하서 김인후의 증시와 문묘배향 연구’를



장흥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의 학덕과 절의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서원이다. 필암서원 환원루. <광주일보 자료>

토대로 조선 후기 하서의 위상 변화를 문묘배향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살펴본다.

고전의 현대적 콘텐츠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주제발표도 있다. 고려대 최혜미 교수는 ‘하서전집 소재 한시의 문화콘텐츠 활용 연구’를 매개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고전 문헌을 어떻게 콘텐츠화할 수 있는지를 돌아볼 계획이다.

한편 홍영기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하서 김인후의 학문과 절의, 시대정신 등을 조명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새롭게 모색,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조선의 선비이자 호남의 대표 선비인 하서의 생애와 학덕을 깊이있게 탐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착순 150명에게는 국역본 ‘하서전집’이 증정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장애·비장애인 화합의 멜로디

광주 남구 실로암센터서 오늘 ‘음악이 있는 장애인권 이야기...’

장애인 인권을 위한 20년의 연대를 음악으로 기념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사)실로암사람들은 10일 오후 7시 광주 남구 행암동 실로암센터에서 ‘음악이 있는 장애인권 이야기-도가니대책위 20년’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2025년 광주 남구청 장애인복지기금 지

원사업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무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꾸미는 화합과 공감의 자리로 마련된다. 연세큰꿈다함계 돌봄센터 아동들의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전자바 이울리니스트 강명진, 가수 기현수의 공연이 이어

진다. 또 강복원 전 광주농악인협회장과 흥은아 광주인화학교 학부모의 이야기가 더해지며, 예술과 기억, 연대의 의미를 동시에 담는다.

(사)실로암사람들 관계자는 “도가니대책위 20년을 돌아보는 이번 음악회는 인권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문화적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가니대책위는 2006년 7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광주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이후, 법제도 개선과 인권옹호 활동을 이어온 시민연대다. /장혜원 기자 hey1@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T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A보험GA협회
IGA Insurance GA Association